

우리나라 근로자의 건강문제

김 영 임

(한국방송대학교 보건위생학과 교수)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문제

한국방송대학교 보건위생학과 김영임

=차례=

- I. 한국인의 건강문제
- II.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 및 직업병 분포
- III.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문제 및 관리
- IV. 맺음말

I. 한국인의 건강문제

전반적인 건강상태 평가를 위한 대표적 지표로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 있다. 이는 의학적 진단에 의한 객관적 자료는 아니지만 의료이용의 시작이 본인이 지각하는 이환에서부터 시작되고 의료수요결정요인으로서도 중요하게 기능하므로 사회적 검증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한 대상자의 16%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표 1 참조), 성별로 남자는 11%, 여자는 24%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남자보다 여자의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건강인식 (%)

	좋지 않은 편	보통	좋은 편
계 (N=6,480)	15.9 %	35.4%	48.7%
성별			
남자	10.6	35.8	53.6
여자	23.6	26.4	50.0

자료원: 남정자등(1995)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대상자를 통해 연령과 직업별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연령이 많아질수록 순차적으로 높아져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7%에 이르며,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여자의 경우 40세 이상 인구의 40%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체적으로 전문직이나 사무직보다는 농 어업이나 단순노무자, 주부 등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숙련 기술자와 단순노무자인 경우 여자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자료는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이지만 스스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고 건강관리를 받아야 할 1차적 대상일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인구층에 대한 심도깊은 관리가 요구된다.

<표 2> 연령 및 직업별 주관적 건강인식(좋지 않은 편)

	전체	남자	여자
연령*			
15-19세	4.8%	1.8%	7.5%
20-29세	9.2	7.5	10.5
30-39세	11.2	7.1	15.2
40-49세	16.9	11.1	22.8
50-59세	29.9	18.9	40.0
60세이상	36.5	27.0	43.6
직업*			
전문직	6.2	3.5	11.7
사무직	5.6	2.9	11.0
서비스근로자	14.2	10.8	17.6
농어업	31.0	26.2	36.1
숙련기술자	9.4	6.5	26.5
단순노무직	22.8	19.0	27.2
학생	6.5	5.7	7.3
주부 무직등	22.7	20.3	23.1

* p<0.01

자료원 : 남정자등(1995). 한국인의 보건 의식 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질환율은 <표 3>과 같이 전체적으로 25%이며,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높아 전 인구의 1/4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순차적으로 만성질환율이 높아지는데 여자의 경우 30세 이상 연령층에서 남자보다 만성질환율이 높고, 40세 이상 연령층의 만성질환율이 남자보다 급격히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어업-> 주부 -> 단순노무자 -> 서비스근로자순으로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사무직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3배정도 더 만성질환율이 높았다. 이는 사무직 남자의 경우 평소 건강에 대한 생각보다 만성질환율이 더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 및 직업별 만성질환 경향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데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보다 더 만성질환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기초자료 수집 시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나 만성질환상태에 대한 자료활용 시 건강상태에 대한 본인 인식자료가 더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우리나라 성인의 성, 연령 및 직업별 만성질환율(%)

변수	전체	남자	여자
계	25.0%	21.3%	28.5%
연령*			
15-19세	5.0	5.6	4.5
20-29	11.9	13.9	10.1
30-39	18.4	16.1	20.5
40-49	31.5	26.6	36.5
50-59	44.5	32.0	56.0
60세이상	59.2	49.9	66.1
직업*			
전문직	18.2	18.7	16.5
사무직	16.5	21.0	7.1
서비스근로자	25.0	21.0	28.9
농어업	41.6	35.9	47.5
숙련기술자	18.5	17.6	23.6
단순노무직	30.2	25.2	35.7
학생	6.5	8.6	4.4
주부 무직등	34.7	35.4	34.5

* p<0.01

자료원: 남정자등(1995).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성인병 유병 및 주요 사인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성인병 유병률은 <표 4>에서와 같이 고혈압이 가장 높고, 다음이 당뇨, 간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높다. 고혈압은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나타나 성인인구의 약 3%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창 활동할 연령층인 40대 이상에서 급격히 유병률이 증가하므로 관심이 촉구된다. 당뇨 또한 40대 이상에서 급격히 유병률이 증가하며, 심장질환은 5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간질환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4> 주요 성인병 유병률(인구 1000명당)

	계	20-29	30-39	40-49	50-59	60-69	70+
위암	0.66	-	0.25	0.33	0.85	4.23	3.90
당뇨병	16.10	1.67	4.69	23.02	46.59	79.75	49.76
고혈압	26.73	2.22	9.38	34.69	82.83	112.91	101.46
중풍	5.73	0.28	0.25	3.24	12.51	31.05	43.90
심장병	11.56	2.22	5.43	16.58	30.20	39.52	44.88
간질환	11.96	13.89	13.58	18.01	21.57	23.99	8.78

자료: 최정수등(1995).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별 주요 사망원인은 <그림 1>과 같다. 1997년 현재 순환기계질환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신생물, 기타, 사고등 사망의 외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볼 때 순환기계질환이나 소화기계 질환의 차지비율은 점차 줄고 있으나 신생물, 기타의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망 1,000명당 2명은 순환기계질환이나 신생물에 의한 것이다.

<표 5> 연도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인구 100,000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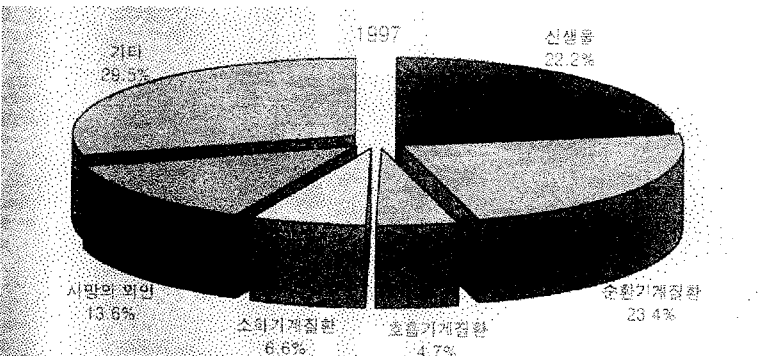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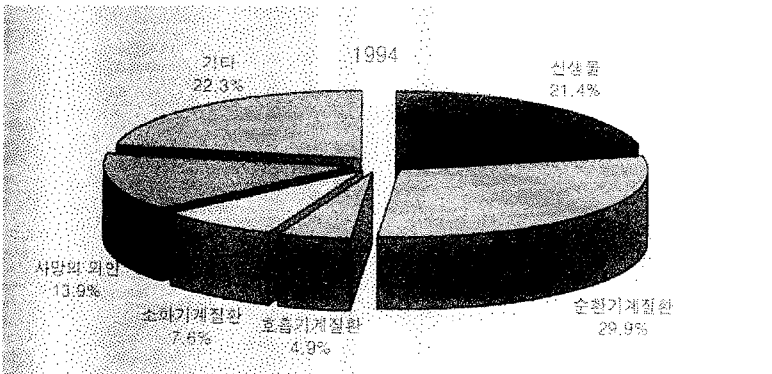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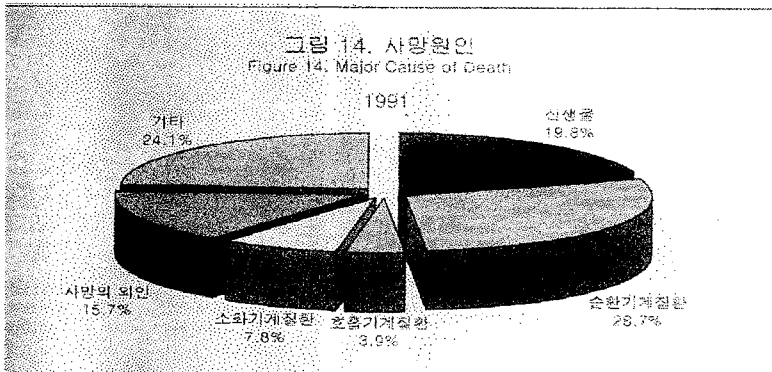
사망원인\연도	1990	1995	1997
신생물	110.6	112.1	115.3
순환기계질환	164.0	138.6	121.3
호흡기계질환	21.9	24.3	24.4
소화기계질환	44.5	39.2	34.4
주산기에 의한 특정병태1)	23.0	35.9	3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증후	72.8	76.2	88.9
사망의 외인	84.8	75.4	70.5

1) 15-49세 여자인구 십만당

자료: 통계청(1998) 1997년 사망원인별 통계연보(인구동태통계에 의한 집계)

연도별 사망원인의 차지비율을 도표로 나타낸 것은 <그림 1>과 같이 1997년 현재 순환기계질환이 23.4%, 신생물이 22.2%, 사고등 사망의 외인이 13.6%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 사망원인
Figure 14. Major Cause of Death



<그림 1> 연도별 사망원인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41쪽

구체적으로 5대 사인별 사망률을 보면 1위는 뇌혈관질환, 2위 심장질환, 3위 운수사고, 4위 간질환, 5위 위암이며(표 6 참조), 연령별로 30-30대에서는 운수사고, 40대에서는 간질환, 50대 이상에서는 뇌혈관질환이 1위를 나타내고 있고, 연령대별로 사망순위가 달라지므로 연령대별 세분화된 건강관리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체 인구의 유병양상은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나 근무환경과 생활양식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우리나라 성인의 5대 사망순위

연령	1위	2위	3위	4위	5위
전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	간질환	위암
20-29	운수사고	자살	사고성익수	심장질환	추락사고
30-39	운수사고	자살	간질환	심장질환	위암
40-49	간질환	운수사고	뇌혈관질환	간/ 간내담관암	심장질환
50-59	뇌혈관질환	간질환	간/ 간내담관암	심장질환	위암
60-69	뇌혈관질환	위암	심장질환	기관지/폐암	간/간내담관암
70이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위암	당뇨병

자료: 통계청(1988). 1997 사망원인별 통계연보

II. 사업장 근로자의 재해 및 직업병 분포

우리나라 사업장 총수는 1998년 현재 225,539개소로 300인 이하 사업장이 213,004개소로 98.8%를 차지하며, 그중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193,050개소로 90.0%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수는 5,067,096명으로 전체 근로자 7,582,479명중에서 66.8%를 차지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총 2,682,816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1990년 85%, 1995년 87.7%, 1998년에 90.3%를 나타내며, 근로자수도 1980년 26.2%에서 1995년 39.2%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1998년 이후 35.4% 수준에 이르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처한 근로조건은 중 대규모사업장에 비하여 시간당 임금수준 및 전체 임금수준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도 더 취약한데, 소규모사업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열악한 보건관리도 포함되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매우 취약하다.

1999년 현재 전체 사업장의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재해자 총 수는 55,405명이고, 재해율은 0.74%이며, 1995년에 비해 75%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도 2,291명으로 95년에 비해 84% 수준으로 감소한 양상을 보이나 직업병자수는 97년에 비해 7%정도 증가하였다. 사망 만인율도 95년에 비해 91%수준을 나타내 직업병을 제외한 재해율, 사망률은 전체 사업장에서 지난 4년간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표 7 > 연도별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구분\연도	1995년(a)	1997년(b)	1999년 (c)	증감(=%=c/a x100)
사업장개소	186,021	227,584	249,405	134.1%
근로자(명)	7,893,727	8,236,641	7,441,160	94.3%
재해자(명)	78,034	66,770	55,405	71.0%
재해율(%)	0.99	0.81	0.74	74.7%
사망자(명)	2,662	2,742	2,291	83.5%
직업병(명)	-	1,424	1,521	106.8% 1)
사망만인율(%)	3.37	3.33	3.08	91.4%

1) 직업병 증감률은 1997년 대비

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통계, 각 연도.

그러나 사업장규모별로 볼 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볼 때(1998년자료) 재해율은 1.10 %로 당해 연도 사업장 평균 재해율(0.68%)보다 월등히 높아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표 8 참조).

< 표 8 > 1998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49인	50-299인	300인 이상	500인 이상	계
1998년					
근로자수	2,688,816	2,384,280	523,320	1,992,063	7,582,479
재해자수	29,754	14,531	2,046	5,183	51,514
재해율(%)	1.10	0.61	0.39	0.26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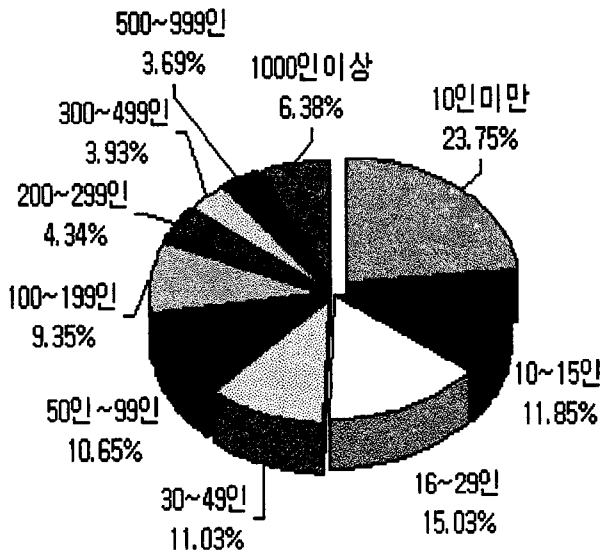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1999), 98 산업재해분석

다시 한번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분포를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72%가 발생하였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62%가 발생하였다(그림 2 참조). 이는 1995년과 비교해 볼 때 300인 이하 사업장 재해율이 전체 재해의 57.8%를 차지하였고, 50인 미만의 재해율이 46%를 나타낸 것과 비교해 50인 미만의 재해율이 더 증가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동 기간동안 중소규모이상 사업장의 작업환경이나 보건관리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과 비교해 더욱 열악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 대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표 9 >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분포

	-49인	50-299인	300인-499인	500인이상	계
1995년					
재해자(명)	35,854	9,225	12,717	15,737	78,034
구성비(%)	45.95	11.82	16.29	20.17	100.0
1999년					
재해자	34,162	5,898	7,584	5,583	55,405
구성비	61.66	10.65	13.69	10.07	100.0

1999년 현재 사업장 규모별 재해분포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규모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분포
 자료 : 한국산업안전공단, 1999년도 산업재해 현황

III. 사업장 근로자 건강문제 및 관리

1. 건강검진 수검률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법적 용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으면 그만큼 질병의 사전 발견율이 높아져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더 기여할 수 있다. <표 10>은 연도별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나타낸 것인데 1970년부터 5년간의 자료를 통해 볼 때 1975년 97%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1997년에는 88%에 이르고 있다.

<표 10 > 연도별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연도	건강진단대상 근로자수(천명)	건강진단수검 근로자수(천명)	수검률 (%)
1970	692	614	88.7
1975	1,416	1,371	96.8
1980	2,585	2,442	94.5
1985	2,692	2,538	94.3
1990	4,046	3,530	87.2
1995	3,876	3,501	90.3
1997	3,709	3,261	87.9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연도.

이에 비해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건강진단검진율은 매우 낮다(한국산업간호협회, 2000).

5인 이하를 포함한 사업장의 건강검진율은 25.9%이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보더라도 건강검진실시율은 35.7%로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88%에 비해 절반수준이하에 불과하다. 소규모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율도 4.5%에 불과하며, 작업환경실시율도 12.2%로 낮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실시율이 저조한 것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는 더욱 열악해 일반건강검진 실시율은 7%에 불과하고, 특수건강검진율은 전무하고, 작업환경실시율은 0.5%에 불과하다.

소규모사업장근로자의 일반건강검진실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나, 바쁘거나 몰라서등의 이유가 많고, 작업환경 미실시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몰라서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의식고양 및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

<표 11 >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실시

		5인미만	5인이상
		사업장수(%)	사업장수(%)
일반건강진단	실시	43(7.0)	80(35.7)
	미실시	571(93.0)	144(64.3)
	계	614(100)	224(100)
특수건강진단	실시	0(0)	10(4.5)
	미실시	614(100)	214(95.5)
	계	614(100)	224(100)
작업환경	실시	3(0.5)	22(12.2)
	미실시	564(99.5)	159(87.8)
	계	567(100)	181(100)

자료: 한국산업간호협회(2000),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실태조사, 미발간자료

2. 직업성 관련질환양상

한편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한 직업병 유병자수는 1970년에 780명이었다가 1975년에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960명, 1990년에는 7,742명에 이르렀으며, 1997년에 2,427명으로 감소하였다. 유병률은 1970년에 0.13, 1975년에 0.22, 1990년 0.22이었다가 1997년에는 0.07로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2 > 연도별 근로자의 직업병 유병자율

연도	직업병유병 근로자수(명)	유병자율(%)
1970	780	0.13
1975	2,960	0.22
1980	4,828	0.20
1985	6,895	0.27
1990	7,742	0.22
1995	3,054	0.09
1997	2,428	0.07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연도.

직업병이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라고 할 때 근로자의 직업성관련질환은 소화기계 질환을 비롯하여 호흡기계, 심혈관계, 피부, 근골격계, 정신신경계, 안과계, 전염성질환, 생식계질환, 직업성암 등이 망라된다. 근로자의 직업병 관련질환을 업무상 질병 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3 >과 같다.

1999년 현재 업무상 질환자수는 1,521명이고,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41.3%를 차지한다 다음이 진폐로 23.5%, 난청이 13.2%, 신체부담작업이 8.2%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1998년과 비교해 특징적인 양상은 뇌심혈관계질환자의 증가로 1998년에 비해 7%이상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신체부담작업이 증가한 반면, 난청이나 유기용제 관련질환은 감소하였고, 진폐나 요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트레스의 증가와 업무환경과 관련해 신종 직업병의 증가양상이 뚜렷한 것인데,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해 보아 고혈압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이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유사한 양상임을 보여 주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표 13 > 연도별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양상

	계	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 물질	신체부담 작업	뇌심혈관	요통	기타
1998년										
총계	1,288	305	232	30	89	18	72	436	51	55
구성비(%)	100.0	23.7	18.0	2.3	6.9	0.4	5.6	33.9	4.0	4.3
1999년										
총계	1,521	358	201	20	51	11	124	628	66	62
구성비	100.0	23.5	13.2	1.3	3.4	0.7	8.2	41.3	4.3	4.1

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통계, 1998, 1999년도

3. 소규모 사업장근로자의 질병양상

이러한 전체 근로자의 질병양상은 한국산업간호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사업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 14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양상

	C 인원(%)		D1 인원(%)		D2 인원(%)	
	5인미만	5인이상	5인미만	5인이상	5인미만	5인이상
간질환	2(40.0)	9(47.4)	-	-	-	4(21.1)
고혈압	-	5(26.3)	-	1(33.3)	-	6(35.3)
당뇨	2(40.0)	1(5.3)	-	1(33.3)	1(100)	2(11.8)
신장질환	-	2(10.5)	-	-	-	2(11.8)
결핵	-	1(5.3)	-	-	-	1(5.9)
난청	-	-	-	-	-	-
심장질환	-	-	-	-	-	1(5.9)
기타	1(20.0)	1(5.3)	-	1(33.3)	-	1(5.9)
계	5(100.0)	19(100.0)	-	3(100.0)	1(100.0)	17(100.0)

5인 이상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C 판정자 분포를 보면 간질환이 가장 많고, 다음이 고혈압, 신장질환순이었고, D1 판정자는 고혈압과 당뇨가 각각 1건씩이었고, D2 판정자는 고혈압, 간질환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로 건강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자료(한국산업간호협회, 2000)에 의하면 일반질환이 39%를 나타내고 직업성관련질환이 61%를 나타냈는데(표 15 참조) 일반질환인 경우 주요 질환은 고혈압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간장질환, 당뇨, 위장질환순이었다. 직업성질환에서는 요통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분진, 피로 및 스트레스, 소음성 난청의 순이었다.

<표 15 > 건강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분포

내용	건수	%
일반질환		
고혈압	427	18.2
당뇨	123	5.3
간장질환	279	11.9
위장질환	85	3.6
(소계)	(914)	(39.0)
직업성질환		
요통	412	17.6
분진	386	16.5
소음성난청	166	7.1
피로 및 스트레스	333	14.2
유해물질	60	2.6
기타	71	3.0
(소계)	(1,428)	(61.0)
계	2,342	100.0

4. 여성 근로자의 질병양상

우리나라 여성근로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980년에 약 120만명에서 1990년대에는 17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98년 현재 전체 근로자 구성비를 볼 때 30-39세가 34%로 가장 높은데 비해 여성 근로자는 20-29세에서 52%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인다. 여성 근로자는 사회간접 자본 및 서비스, 부동산, 도소매, 금융등 3차 산업에 58%가 근무하며, 2차 산업인 제조업분야에는 42%, 1차 산업에는 0.4%가 근무하여 단연 서비스분야의 차지 비율이 높다. 그중 최우위 분야가 보건분야이고(67%), 다음이 숙박, 금융/보험, 제조업분야이다. 특히 유해요인이 많고, 직업병발생위험이 높은 제조업분야 여성 근로자는 653,000명중 의복 및 모피제품 분야의 비율이 66%를 차지하고, 다음이 섬유제품, 음식료품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영세소규모사업장에 47%, 중소기업 사업장 30%, 대규모 사업장에 23%가 근무하며 영세소규모사업장 여성근로자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의 일반적 건강상태가 남성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것은 앞선 자료를 통해 검토된 바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직업성 관련질환양상을 보면 건강진단대상자중 건강진단율이 남성보다 낮으며, 일반질환 유소견자중 여성근로자의 차지비율은 15%에 이른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재해율은 평균 10%이상으로 남성보다 더 높다. 특히 통신업, 전자제품제조업, 계량기, 정밀기구제조업의 여성근로자 재해율은 남성보다 월등 높다.

높은 제조업 여성근로자의 비율과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거나 앉아

일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업무환경이 VDT증후군등의 발생을 높히고 있어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세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IV. 맺는말

우리나라 성인에 대한 건강상태를 요약해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상태에 대해 16%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자보다 여자의 건강상태는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만성병 이환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지되고 있다. 연령별로 40세 이상이 되면 건강상태는 평균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데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그 비율이 2배이상 높다. 직업별로 보면 농어업이나 단순직근로자의 전문직이나 사무직보다 건강상태가 더 열악하며 여자인 경우 단순직 근로자뿐만아니라 숙련직에서도 건강상태는 좋지 않은 비율이 남자에 비해 높다. 전체 인구집단과 비교해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더 좋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재해근로자중 여성근로자의 재해가 10.3%에 이르고 있음이 제시된 자료(김영임, 1999)를 고려해 볼 때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성인병 유병률은 고혈압, 당뇨, 간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높은데 고혈압은 성인인구의 약 3%나 차지하고 있으며, 한창 활동할 연령층인 40대 이상에서 급격히 유병률이 증가하므로 관심이 촉구되고, 당뇨나 심장질환, 간질환도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망원인을 통해볼 때 순환기계질환, 신생물, 기타, 사고등 사망의 위인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병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1999년 현재 재해율이 0.74%로 95년에 비해 75%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사망률도 84% 수준으로 감소한 양상을 보이나 직업병자수는 97년에 비해 7%정도 증가하여 직업병을 제외한 재해율, 사망률은 전체 사업장에서 지난 4년간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장규모별로 볼 때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사업장 평균 재해율보다 월등히 높고, 전체 재해의 62%나 발생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이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기간동안 중 소규모이상 사업장의 작업환경이나 보건관리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과 비교해 더욱 열악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자료를 통해 질병양상을 파악한 결과 전체 사업장에서 1997년 현재 88%에 이르는 것에 비해 50인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건강진단검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양상을 보면 1999년 현재 뇌심혈관계질환이 가장 많고, 진폐, 난청, 신체부담작업의 순을 나타내고 있으며, 뇌심혈관계 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체부담작업이 증가한 반면, 난청이나 유기용제 관련질환은 감소하였고, 진폐나 요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스트레스의 증가와 업무환경과 관련해 신종 직업병의 증가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전체 인구집단의 질병양상이나 사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체 근로자의 질병양상은 50인이하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사업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증상이나 질환이

전체 근로자의 발현과 유사하며, 또한 전체 인구집단의 증상이나 질환과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건강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위험요인의 관리가 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재해율이 더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양상이 생활양식, 작업환경에 크게 영향받고, 아울러 자기책임이나 의식고양이 자기건강관리능력향상의 중요 요인이므로 사업장 규모별로 이를 고려한 세분화된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작업환경특성이 고려된 보건관리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화중(1992) 산업간호학, 수문사

남정자등(1995).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1998). 1997년 사망원인별 통계연보.

김영임(1999). 여성근로자의 건강과 보건관리자의 역할,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교육을 위한 강사교육원서자료, 한국산업간호협회.

노동부(1999). '98 산업재해분석

최정수등(1995).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산업간호협회(2000),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실태조사, 미발간자료

한국산업간호협회(2000) 2000년 영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 1 단계 공공근로사업 평가연찬회 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1999, 1997, 1995년도 산업재해 현황.

<http://www.kosha.or.kr/stat/stat>